

탈락한 아이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한 스님들의 춤사위가 현란했다. 9월 21일 '도전 범종을 울려라' 패자부활전에서 지도법사 스님들이 유행가요에 맞춰 춤 경연을 펼치고 있다. 대회장은 스님들을 응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새싹불자들에 희망을"… 새 장르 연 나란다 축제

은정불교문화진흥원, 9월 21일 동국대서 개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이 태어난 동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룸비니 동산! 부동산이라고 쓴 저기 아이 나가주세요."

동국대 팔정도 광장이 노란색 물결로 가득채워졌다. 전국에서 모인 어린이들과 이를 응원하는 스님과 학부모들로 가득찼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9월 21일 동국대서 제11회 나란다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의 백미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초등부 결선무대에서는 MC의 사회에 따라 웃음꽃이 활짝 폈다.

행사 시작과 함께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전국 사찰에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해주길 바란다. 오늘의 나란다 축제가 인생의 추억이 되고 행복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제출한 첫문제를 시작으로 아이들은 다양한 불교상식을 겨루기 시작했다.

"돌, 나무, 흙으로 만들어진 건축물로 부처님의 사리나 경전을 안에 모신 것으로 불자들이 그 주위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돌기도 하는 이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알고 자신있게 화이트보드를 드는 아이들부터, 주섬주섬 옆의 아이를 보고 드는 아이들까지 흥미진진한 문제풀이가 계속됐다.

매회 라운드마다 탈락한 아이들이 나오고, 떨어진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패자부활전. 아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스님들은 최신 유행가에 맞춰 춤을 췄다. 긴장감 속에 참가한 학생들은 재미있고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옥천암서 온 이혜령 학생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쉽지 않았다"며 "스님과 어린이법회 지도 선생님이 응원해줘 기뻤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는 접전 끝에 봉선사 어린이법회 소속 이진우(의정부초3) 어린이가 최종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도전, 범종을 울려라' 인기
외국인 참여 글로벌 마당과
어린이 4차산업 체험 마당
각종 부스마다 '인산인해'

이진우 어린이는 "매주 일요일마다 어린이법회에서 교리공부를 한 것이 이번 대회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반부에서는 조계사 신도 신종열 씨가 일반부 우승을 차지했다.

4차산업 체험 부스 인기만점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아이들이 VR과 3D프린트 등 4차산업과 관련된 체험부스가 마련돼 큰 인기를 끌었다. 교리경시대회 인원만큼이나 많은 아이들이 부스마다 가득했다. 이중 드론비행체험과 3D안경만들기 체험 부스는 참가자들이 몰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김해초등학교에서 온 김형용 학생은 "TV에서만 보던 것을 할 수 있어 좋았다. 드론 비행기도 조종해보고, 로봇축구도 했는데 정말 재밌었다"며 "3D프린터로 안경을 만들었는데 신기하다. 학교에서도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 두 자녀를 데리고 온 김현정 씨는 "가을 날씨도 좋은데 아이들과 함께 체험활동을 하고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마당도 새롭게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지(知)·덕(德)·체(體) 3개 존으로 나뉘어 구성된 글로벌 마당에서는 한국문화를 퀴즈로 배우는 'OX퀴즈'와 외국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국가별 불교 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무대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각 국가별 불교의상을 갖고 나와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모국의 불교를 소개했다. 또 외국인 불자들이 함께 명상 및 요가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미니 명랑운동회'로 상호 국가간 화합의 장도 펼쳤다.

이번 축제의 마지막은 장소를 옮겨 열린 나란다 K댄스 경연대회였다. '대대로', 'I am star', '미류' 등 저마다 준비한 율동을 통해 참관객들을 즐겁게 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 성효 스님은 "나란다 축제는 한국불교 포교에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란다대회 찰칵! 한장면



소녀상을 만드는 고등학생 불자들의 모습.



대회장에서 응원전을 펼치는 학부모들.



아이들이 4차산업 부스서 로봇축구를 하고 있다.



VR을 통해 사찰을 참배 중인 초등학생의 모습.



글로벌마당서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외국인 대학생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정 대행 :** 혜 인
총무원장 대행 : 법 광 **사서실장 :** 천 산 **율원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 **원로원 :**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법성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동오
문화부장: 태산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율조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호산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무공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법광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송산
포교국장: 영암
국제포교원장: 천산인월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법철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명원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법안
호법국장: 지호
감찰원장: 정오
감차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금산
감찰2국장: 인산
비구니회장: 지성
비구니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총무: 금산
부회장: 혜산, 해원
재무: 도은, 정해
교무:본각, 수정
교육: 보림,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홍산
강원: 각원, 해인
복지: 화광, 무연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현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울산종무원장: 법철
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남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베트남종무원장: 청목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불교조계종 대학림
학 장 : 혜일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오,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 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기자: 나윤하
사회부기자: 이근진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문화국장 황산, 사회국장 법산
이사: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국사

▣ 전국신도회
전국신도회장: 홍창석
고문: 설주성
수석부회장: 윤근
여신도회장: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서우연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청년신도회
회 장: 손정일
홍보처장: 이근진
기획대리: 나윤하
기획실장: 홍의현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50-1 (돈암동 83-2)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 02)511-1080
홈페이지 : 불교조계종.kr (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이메일 주소 : samhwade@naver.com
samhwade@hanmail.net